한국전력공사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사무

**1. 가장 심혈을 기울여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동기,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법학도에서 번역학도로>

본래 법률가가 되고자 법학을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학이 적성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예전부터 관심을 갖던 영어번역을 새로운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군에 입대하게 되어 새로운 학과에 적응할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전역 후 일면식도 없는 학우들 사이에서 기가 죽었고 급기야 실력 면에서 크게 도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전공을 바꾼 결정에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반드시 1년 안에 장학생이 되자는 다소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공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영어 학습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번역에 대한 방법론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점차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갔고 그 결실은 두 학기 연속으로 받은 성적장학금이 보답해주었습니다.

**2.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 및 느낌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며 특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병이 될 무렵 부대 전원의 전투력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부서차원에서 하달받았습니다. 미군동료가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하는 동안 저는 혼자 해보겠다고 곧바로 상관께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이 아닌지 굳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병휴가를 미루고 야근을 하며 임무에만 매달렸습니다. 우선 부대 내 미군과 한국군의 각종 개인자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컴퓨터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사격시험과 체력시험성적 그리고 건강검진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관께 좋은 평가를 받아 대대 전체가 사용하도록 채택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자신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면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KEPCO에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주십시오.**

사무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 워드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잘 알아야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도 효과적으로 완수해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실제 업무를 하듯 해당 프로그램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의 경우 다양한 수식을 알아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재적소에 응용하는 방법도 숙지해야하므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보도 자료를 읽으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하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떤 업무든지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송전탑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나주본사이전과 같은 사내정보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물론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기사를 참고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오고 있습니다.

**4. 대학에서 습득한 전공 또는 기타지식을 연계활용하여 최근 한전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공공선의 강조 – 갈등해결의 첫걸음>

밀양송전탑문제는 지역적 측면을 넘어 사회전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할 때는 밀양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송전탑이 들어서는 게 얼마나 위험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체의 유해성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송전탑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암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질긴 갈등을 해결하고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선입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며 공공선은 오늘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가 이로울 수 있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주민들께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송전탑을 설치, 운영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공공선을 호소할 수 있다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